

바울의 기도 (고후12:1-10)

-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워런 위어스비 지음, 나침반출판사” 참고함.

- 1 무약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인물들 가운데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복음사역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바울의 기도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1.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를 두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한 것으로 보아, 사탄이 바울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혼란케 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① 때로는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히12:10-11)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② 때로는 온전하게 하시려고:

(벧전1:6-7)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③ 때로는 보호해주시려고: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고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이기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2. 축복은 멍에와 함께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멍에도 함께 주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만 있으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만큼 멍에를 지워주심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축복과 승리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싸움 없이는 승리가 없고, 전쟁이 없이는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쓴 맛을 본 자만이 승리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신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축복에는 항상 멍에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고통은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커서 바울의 약함을 즉시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허락된 것임을 깨닫자 자신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보다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방편임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참아내도록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 우리는 고난을 책임을 전가하는 구실로 삼기보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길을 찾아야 한다.
- 역사는 고난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겼던 성도들의 실례로 가득합니다.
- 고통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나눔

1.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2. 기도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기도생활을 할 것인지 나누어보십시오.